

덕성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 인문·사회계열 -

계열	인문·사회계열	모집단위	글로벌융합대학(인문사회) / 글로벌융합대학(유아교육과)
수험번호		성명	

인문·사회계열 [고사시간 14:30~16:00] (90분)

※ 문제수는 총 2문제입니다.

※ 고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1. 답안 작성 필기구

- 답안 작성은 우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블펜** 또는 **개인 필기구(검정 또는 청색 블펜만 가능)**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 ※ OMR 답안지 상단 유의사항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작성하기 바랍니다.
 - ※ OMR 답안지에는 안내된 답안 작성 필기구 외에 다른 도구를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연필·샤프·지우개도 사용은 가능하나 번짐 또는 지워짐이 발생하여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채점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수험생 인적사항 기재

- **답안지 매수는 총 1매(단면)이며**, 답안지에는 수험생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성명 작성, 모집단위·수험번호·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마킹)
 - ※ 수험생 인적사항 미기재 시 해당 답안은 무효 처리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 수험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잘못 마킹한 경우, 틀린 부분에 'X' 표시(예: ⊗)**를 한 후 바른 자리에 다시 마킹하시면 됩니다.(답안지 교체하지 않음)

3. 답안 작성 방법

- 답안 작성은 반드시 문제지 문항 번호와 일치하는 답안란에 작성해야 합니다.
 - ※ 문항번호-답안 불일치 시 무효 처리합니다.
 - ※ 예: 1번 문제의 답안은 1번 답안란에 작성해야 하며, 1번 문제의 답안을 2번에 작성 시 무효 처리
- 답안지 글자 수는 최대 525자까지(띄어쓰기 포함) 작성 가능하며, 525자를 초과하여 기재한 답안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연습지는 별도 제공하지 않으므로, 배부된 문제지 표지 및 뒷면을 연습지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 ※ 개인이 가져온 연습지 사용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답안 수정 방법

- 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새로운 내용을 작성합니다.
 - ※ 혼선 방지를 위해 두 줄을 그은 바로 윗줄에 일률적으로 수정 내용을 작성합니다.
 - ※ 원고지 수정법 활용 가능하며, 이로 인한 감점은 전혀 없습니다.
- 답안 수정 시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5. 답안지 교체

- 답안지 교체는 1인당 단 1회만 가능하므로 답안지 교체 요청은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 ※ 교체 요청 즉시 기존 답안지는 감독위원이 [X] 표시하고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기존 답안을 보고 옮겨 작성하는 것은 가능)
- 고사 종료 10분 전부터는 답안지 교체가 불가합니다.

6. 퇴실 및 문제지 반출

- 고사 종료 시까지 중도 퇴실은 불가합니다.
- 퇴실 시 문제지와 답안지는 모두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문1]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㉔ 인생의 만사가 경쟁을 의지하지 않는 일이 없으니, 크게는 천하와 국가의 일부부터 작게는 한 몸 한 집안의 일까지 실로 다 경쟁으로 말미암아 먼저 진보할 수 있다. 경쟁이란 것은 자존을 위한 싸움이니, 하나의 개체가 다른 개체와 더불어 투쟁함으로써 혹은 살아남고 혹은 멸망하는데, 그 큰 소리침은 자연의 선택으로 귀결된다. 자연의 선택이라는 것은 물(物)이 투쟁해서 존재하는 것이니, 그 존재함에는 반드시 존재하게 된 까닭이 있고 반드시 자연에서 얻은 몫이 있을 것이다.

‘물경(物競)’은 생물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며, ‘천택(天擇)’은 환경에 적응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사람과 동물은 세상에 함께 살아가면서 천지자연의 이익을 먹고 살아간다. 그렇지만 서로 부딪치면서 사람과 동물은 각각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게 된다. 처음에는 종(種)과 종이 싸우며, 나아가 집단과 집단이 싸우게 된다. 약자는 언제나 강한 자의 먹이가 되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에게 부림을 당한다. 스스로 살아남아 종을 남기게 되는 것은 반드시 강인하고 지혜와 기교가 뛰어나 당시의 천시·지리·인사에 가장 잘 적응한 자이다. 이는 동식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인간도 본래 동물의 부류이기 때문이다.

생물계에서 강자의 권리 경쟁이 발생하면 몸과 마음이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쓰러뜨리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우리 인간도 모든 생물과 그 근원을 같이 하며 그 몸과 마음의 강약에 따라 강자의 권리 경쟁이 발생하면, 강자가 약자에게 승리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무릇 인류계에서 일어나는 만반의 생존 경쟁 가운데 강자의 권리를 위한 경쟁이 가장 많고 가장 성하며 이러한 경쟁은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인류계의 진보와 발달을 촉진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 사회가 진보하고 발달하는 것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 능력의 차이가 생기며, 다른 인종들이 모인 사회에서는 그 인종의 우열로 귀천의 차이가 생겨난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생기는 권력 경쟁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맹목한 성질을 떨 수밖에 없다. 이는 결코 도덕에 반하고 법리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㉕ 나는 생명처럼 추상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는 했다. 그것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것이었다. 중학교 때의 생물책 용어를 빌려 쓴다면 아버지는 자기와 똑같은 것을 복제하여 종족을 늘려 놓고 돌아갔다. 어머니에 의하면 아버지는 생명의 다른 모임터로 돌아갔다. 아버지의 몸은 화장터에서 반 줌의 재로 분해되었다. 그 반 줌의 재를 받아 들고도 어머니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누구나 죽으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우리는 반 줌의 재를 흐르는 물 위에 뿌려 넣었다. 영호와 나는 눈물을 주먹으로 씻어 내리며 울었다.

“숙제 다 했니?”

아버지가 물었다.

“아뇨.”

나는 자를 대고 끝이 뾰족한 삼각형을 그렸다.

“숙제를 해.”

“이게 숙제야요.”

아버지는 내가 그린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먹이 피라미드야요.”

내가 말했다.

“그 효용이 뭐냐?”

“생태계를 설명하는 그림야요.”

“설명을 해 봐라.”

“이 맨 밑이 녹색식물로 일 단계야요. 이 식물들을 먹는 동물이 이 단

계이고, 식물을 먹는 동물을 잡아먹는 작은 육식 동물이 삼 단계, 또 이것을 잡아먹는 큰 육식 동물이 맨 위의 사 단계야요.”

“영호야.”

아버지는 말했다.

“너도 형처럼 설명할 수 있겠니?”

“못 해요.”

영호가 말했다.

“형처럼은 못 해요. 그래도 전 알아요. 우리는 이 맨 밑야요. 우리에게 잡아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위에는 우리를 잡으려는 무엇이 세 층이나 있어요.”

“아버지도 쉬셔야지!”

어머니가 말했다.

“쉬셔야 할 분은 어머니예요.”

“그동안 힘든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 이제는 편히 쉬실 수 있을 거다.”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반 줌의 재를 썼던 흰 종이를 물 위에 띄웠다. 우리는 물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없어졌다. 바람이 불었다. 햇볕이 따뜻했다. 몇 마리의 새가 어머니 옆에서 날았다.

- 조세희,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

㉖ 우리는 진화론이라는 말을 들으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다윈이 주목한 지점은 생물체에 일어나는 ‘변이의 다양성’이었다. 다윈은 변이가 쌓여 점차 환경에 더 잘 적응된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잘 적응한 방식’이 오로지 ‘한 가지 방식’ 뿐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오히려 자연 선택의 다양성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다윈은 “변화는 생명체가 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해서, 변식 행위를 통해 우연히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어떤 외부의 힘이 개입하여 작용하지 않으며, 모든 생명체는 우열이 없다.”라고 썼다.

다윈이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에 더욱 주목했음은 ‘다윈 핀치’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갈라파고스 핀치(참새목의 작은 조류)에 관한 연구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13종의 핀치는 모두 부리의 모양이 달랐고, 그 부리들만큼이나 그들의 먹잇감도 달랐다. 다윈은, 갈라파고스 핀치가 원래 하나의 종이었으나 오랜 세월 저마다 처한 환경에서 가장 능률적으로 구할 수 있는 먹잇감을 찾는 동안 다양하게 변화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3종의 핀치는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작은 곤충, 큰 곤충, 날아다니는 곤충, 나무껍질 안쪽에 숨어 있는 곤충, 딱딱한 씨앗과 부드러운 열매 등 종마다 다양한 먹잇감을 택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래서 같은 먹이 사슬 안에서 종끼리 경쟁할 필요 없이 제한된 서식지 안에서 더 많은 수의 핀치가 살아갈 수 있었다. 이처럼 진화의 가장 큰 무기는 다양성의 증가다.

자연계에서 이러한 예는 무궁무진하다. 오로지 타인을 짓밟아야만 살 수 있다는 잔혹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는 생태계에 대한 모독으로 느껴질 정도다. 다양한 생물 종이 아무리 제각각 다양한 자원을 나누며 살아간다고 해도, 생물의 가짓수에 비해 자원의 가짓수는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같은 자원을 놓고 여러 생물 종이 경쟁해야 하는 일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종을 없애고 모든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지는 않는다. 아니, 실제로 많은 생물 종은 서로를 내쫓기 위해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서로 공존하는 방식을 찾고는 한다.

이처럼 진화론은 태생부터 경쟁보다는 공존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었는데, 우리는 오래도록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변하고 있다. 획일성과 경쟁, 반목과 전쟁이 난무하던 시대는 가고, 다양성과 화합, 공존과 더불어 사는 삶이 최대의 가치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미 생명체는 태곳적부터 체득하고 겪어 왔던 방식의 가치를, 세상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 이은희,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

[문2]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㉔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자본주의 경제 원리의 토대를 만들었는데, 그는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자유 경쟁의 원리를 주장했다. 그는 인간이 타인에 대한 동정심보다 자신에 대해 애정이 앞서는 존재이며, 이러한 인간의 타고난 이기심을 인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개인과 사회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즉, 인간의 이기심을 통제하기보다 오히려 경쟁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이러한 경쟁 논리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점점 더 좋은 물건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 그리고 이를 만족시키려는 기업들 간의 자유 경쟁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오늘날 자유 경쟁의 원리는 일반화되었고, 자유 경쟁의 원리를 따르는 자본주의 경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경쟁 논리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경쟁이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어 인간 관계를 해친다고 비판한다. 효율성과 적자생존의 법칙을 앞세운 경쟁 논리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도외시한 채, 결국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경쟁에 대한 오해다. 경쟁에는 이미 협력의 뜻이 담겨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협력은 필수이다. 경쟁은 경쟁자를 부정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각자의 의욕과 노력을 한층 더 이끌어 내는 긍정적 상호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요즘 사회를 가리켜 유독 ‘경쟁 사회’라 부르며, 승자와 패자를 가혹하게 가르는 약육강식의 비정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가 경쟁 사회가 아니었던 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인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각자의 이익을 위해 항상 경쟁해 왔다. 그 과정에서 운동 경기에서처럼 공정한 경쟁 조건과 규칙을 함께 발전시켜 왔다. 경쟁 상대가 승복할 수 없는, 부정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으로는 지속적인 경쟁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경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기 위한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것이다.

- 김범목 · 윤용아, 「경쟁, 어떻게 받아들일까」

㉕ 롤스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것이라면 정의롭다고 보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고 여겼다.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최초의 가상적 상황인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타인의 이해관계에 무관심하며,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한다. 이들은 공평한 합의를 위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 재능, 가치관 등을 모르고 있다고 가정한다. 롤스는 이렇게 무지의 베일을 쓴 상황에서,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의의 두 원칙에 합의할 것이라고 보았다. ‘자유’의 우선성’을 추구하는 제1원칙과, ‘차등’의 원칙의 성격을 지니며 효율성과 복지에 대하여 ‘정의의 우선성’을 추구하는 제2원칙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려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노직은 자유 지상주의적 입장에서 정의를 탐구하였으며, 재화를 소유하게 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만일 어떤 개인이 정당하게 노동하여 재화를 취득하였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재화를 양도 받았다면 그의 소유는 정당한 것이다. 다만 재화를 획득하고 양도받는 과정에서 부정의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처럼 노직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을 정의로 보았으며, 국가에 의한 재분배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㉖ 성과 연봉제란 개인의 업무에 대한 성과 평가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임금 체계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일한 햇수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호봉제와 달리 동일 직급 내에서도 급여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통화 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기업 스스로가 기업 성과 향상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성과 연봉제는 기업의 임금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노력을 극대화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려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16년 1월 「공공 기관 성과 연봉제 권고안」을 확정·발표하였는데, 2010년 6월 도입한 간부직 성과 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성과 연봉제 확대를 통해 경쟁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 근무 연수와 자동 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의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좋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㉗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를 실천하는 무장애 도시를 소개합니다. 배리어 프리란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을 말해요. 1970년대 초반부터 미국, 스웨덴,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다름없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문턱을 없애자는 운동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 이후에는 물리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자격, 시험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법률적 장벽을 비롯해 각종 차별과 편견, 나아가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해 사회가 가지는 마음의 벽까지 허물자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념을 받아들여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있어요. 그 도시는 바로 2015년 7월, 전국 최초로 무장애 도시를 선언한 A시입니다. A시는 장애인과 노약자가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목표로, 무장애 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 내 시설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어요. 횡단보도에 배리어 프리 디자인을 도입했고, 식당, 병원, 대형 마트, 금융 기관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문턱 없애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어요. 시민들도 자발적 성금, 재능 기부,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문제 1] ㉔와 ㉕를 요약하여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㉔와 ㉖를 활용하여 문제 상황의 해결 방안을 서술하되 그 이유를 밝히시오.

(500±25자) [55점]

㉔ 핀란드 유명기업의 부사장 B는 제한 속도 50km/h 구간에서 75km/h로 주행하다 적발됐는데, 벌금이 11만 6000 유로(당시 환율로 1억 8000만 원)였다. 육가공 식품업체 상속자 C는 제한 속도 40km/h 구간에서 80km/h로 달렸다가 17만 유로(당시 환율로 2억 6000만 원)를 내야 했다.

핀란드 형법은 법규 위반자에 대해 감옥형, 누진적 벌금형, 정액 벌금형 및 경고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 누진적 벌금형은 교통 법규 위반, 경제 범죄 등에도 적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제재 수단이다.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현장에서 사회 보장 번호를 조회하여 소득 수준과 자녀 수를 확인하고,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하여 벌금 납부 고지서를 발급한다. 구체적인 벌금 산정 방법은 우선 월 소득에 1/60을 곱하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가중치를 곱한다. 이후 기초 공제액과 자녀 공제액을 삭감하여 최종 벌금액을 제시한다.

㉕ 자유 경쟁 체제가 극단적인 강자의 논리나 불평등 재생산 체제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분배를 강조함으로써 복지 정책을 강화하면 소득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복지 정책이 강화될 때는 정부의 간섭이 증가하여 기업 성장이 저해되고, 이에 따라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 그러면 기업의 고용 상황은 경직되어 실업이 증가하는데,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은 전문직과 숙련 노동자가 아닌 비숙련 노동자이다. 비숙련 노동자의 실업이 증가하면 소득 격차가 더욱 심해지게 된다. 소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배 정책보다 시장 경제 체제가 더 효과적이다.

[문제 2] ㉔에 나타난 두 학자의 관점을 요약하고, 그 관점을 기준으로 ㉔, ㉕, ㉖, ㉗을 분류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500±25자) [45점]